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오늘 점심은 차인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점심과 오후찬양 예배는 '기정의 주일'로 이해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대표기도는 신태식 장로님입니다.
2. 본당 뒤편 '하늘문 소식'란에 2024년 '봄 삼방 일정'이 실려 있습니다. 새가족, 이사삼방, 그리고 지난해 봄 삼방을 받지 않은 가정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3. 남여선교회 주관으로 '봄맞이 전교인 애유회'를 5월 12일(주일)에 가집니다. 사전 일정 잘 조성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4. 2024년 팔리핀 단기선교 단원을 모집합니다. 단기선교 일정은 7월 8일(월)~13일(토)까지입니다. 먼저 소개 동영상 2를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침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박성근 장로님(010-5575-7702)께 문의 및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마감은 4월 28일까지입니다.
5. 교우동정: 오진석 집사(김진양 집사)님의 자녀인 오진주 자매가 이번 '번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교우들의 기도에 대한 감사로 '떡'으로 섬겼습니다.
6. 담임목사동정: 담임 목사님은 4월 23일(화) 오전 9시부터 온누리교회(서빙고)에서 진행하는 평남노회 제 200회 봄노회 참석합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4월 21일	4월 28일	5월 5일	5월 12일
예배기도(2부)	박성근 장로	신태식 장로	권용기 집사	신동기 집사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차인숙 집사 가정	가정의 주일	조남희 집사 가정	전교인 애유회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곽성미 집사 등)
3.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애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예주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친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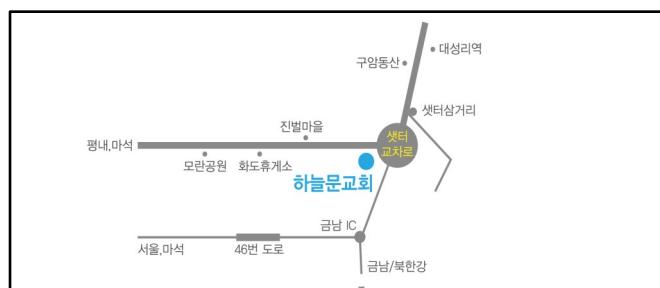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는 길



섬기
는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천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윤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예수 닮아

향기 되어

감동주는
하늘문 교회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SUNDAY A.M WORSHIP 주일 낮예배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 예 배 로 부 름	인 도 자
* 성 시 교 독	교독문 2번(시편 2:1-8)	다 같 이
* 경 배 찬 송	2장(통 6장)	다 같 이
* 참 회 기 도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양과 기도

찬 송	197장(통 178장)	다 같 이
대 표 기 도	1부인도자, 2부백성군장로

봉헌과 말씀

성 경 봉 독	요3 1:2-4	인 도 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 헌 기 도	인 도 자
말 쯤 선 포	'아름다운 여행'	허영진 목사
마 무 리 기 도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인 도 자
* 결 단 송	620장	다 같 이
* 축 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SUNDAY P.M WORSHIP 주일 오후예배

오후 1:30

인도 : 김진규 전도사

경 배와 찬양	찬양인도 : 청년부	다 같 이
여 는 기 도	인 도 자	
특 별 찬 양	누 구 든 지	
성 경 봉 독	눅 15:29-32	인 도 자
말 쯤 선 포	‘첫 째 아들’	김진규 전도사	
기 도	김진규 전도사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결 단 찬 송	‘돌아온 펭자’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 요 예 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허영진 목사

마 16:24-28 ‘십자가의 길’

금 요 기 도 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새 벽 기 도 회 새벽 5:30 <하늘문의 만나>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현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현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PASTOR'S COLUMN 목회자 칼럼

믿음의 용기

인생이란 늘 순풍에 뒹 단 배가 아닙니다. 누군들 예외 없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자만해서도,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똑같은 일에도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의 크기가 다르듯, 따라서 자신이 찾는 가장 이상적 행복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 예로, “나는 때때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는지 자문한다. 만약 즐겁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본다. 궁리 끝에 그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창의적 기업가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 (Richard Branson) 영국 베진그룹 회장이 이야기하는 '재미'의 지향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는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할까요? 이를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성공과 연결해 보면 어떨까. 물론 성공에 정답이란 없습니다. 다만 내게 맞는 답이 있을 뿐입니다. 곧, 다른 사람 마음에 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 물질이나 권력 같은 수단적 가치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수단적 가치는 말 그대로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단은 진정한 가치 만족을 가져다줄 수 없기에 채우고 채워도 허기가 지게 마련입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그럴까요, 요즘 사는 게 지옥 같다 말을 곧잘 듣곤 합니다. 이는 결국 무거운 바위를 끊임없이 밀어 올려야 했던 시시포스 (Sisyphus)의 저주가 따로 없습니다.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줄 수 있는 목적적 가치 설정이 중요한 건 그래서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가치는 '상생(相生)'을 지향해야 합니다. 혼자 잘 먹고 잘살자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가치는 종국에는 원치 않는 결과를 곧잘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진정한 성공을 하려면 나의 성공을 정의하기 위한 가치 설정이 중요하며, 그런 가치는 나의 것이어야 하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하며, 상생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누구나 예외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용기를 내어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진정한 성공에 이르지 않을까 확신해 봅니다.

Written by 허영진